희망찬 농업, 활기찬 농촌, 행복한 국민
농림축산식품부
Ministry of Agriculture, Food and Rural Affairs

산업통상자원부
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기획재정부
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
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afra.go.kr
http://www.motie.go.kr
http://www.mosf.go.kr

보도자료

2014년 7월 18일 09:30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 박수진, 사무관 김동현(044-201-1822) / 제공일 : 7월 18일(총4매)
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장 김진동, 서기관 고상미(044-203-5631)
기 획 재 정 부 통상정책과장 정병식, 사무관 김동진(044-215-7676)
기 획 재 정 부 다자관세과장 박성훈, 사무관 조성아(044-215-4455)

2015년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

- 관세화 이후 쌀 산업의 체질 개선 및 농가 불안감 해소 대책 마련 강구 -

《 주요 내용 》

◇ 정부는 7월 18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, 지난 20년간 [illegible] 관세화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기 어렵다고 판단, **'15년 1월 1일부터 세계무역기구(WTO)에서 쌀을 관세화**하기로 결정함

○ 그간 의견수렴 결과 농업계는 쌀 의무수입물량 추가 증량은 쌀 산업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

○ WTO 농업협정상 '15년부터 관세화 의무가 발생하는데, **관세화 유예를 더 연장**할 경우 의무수입물량 증가로 **쌀 산업이 더 위축**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

◇ 향후 전문가 협의, 이해관계자 설명, 국회 보고 등을 거쳐 **쌀 관세율 등을 포함한 양허표 수정안을 확정**한 후 **9월말까지 WTO에 통보**할 예정

○ 관세화 이후에도 주식 공급기반으로서 쌀 산업의 지속 발전과 관세화에 따른 농가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**대책도 마련**

❑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(UR) 협상 및 '04년 쌀 협상 결과에 따라 예정되었던 대로 **'15년 1월 1일부터 쌀을 관세화*하기로 결정**하였다.

* '쌀 관세화'는 '86~'88년도의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해당 관세를 납부할 경우 쌀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, 수입물량 제한 등 관세 이외의 국내시장 보호수단을 관세로 전환하는 것임

○ '94년 타결된 UR협상에서 모든 농산물은 관세화하기로 했으나, 우리나라 쌀은 예외를 인정받아 '95년부터 금년 말까지 **총 20년간 관세화를 유예**했고, 금년 말 유예 기간이 종료된다.

* UR협상에서 쌀은 10년간('95~'04년) 관세화 유예. '04년 쌀 협상을 통해 관세화 유예를 10년('05~'14년) 연장하였고, 그 대가로 의무수입물량(TRQ)을 설정하여 유예기간동안 증량
  - 의무수입물량(MMA) : ('95) 51천톤 → ('04) 205 → ('14) 409 (5% 관세율로 수입)
  - 409천톤은 '13년 국내 소비량의 9%이며 관세화 후에도 5% 관세율로 수입 허용

❑ 정부는 7월 18일 **농림축산식품부·산업통상자원부·기획재정부**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**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**하여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.

○ 그간 검토해 온 관세율 수준, 국내·외 쌀값, 중장기 환율 및 국제가격 전망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, **관세화 후 현행 의무수입물량(409천톤) 이외의 쌀 수입량은 미미**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,

○ **관세화 유예를 연장**하기 위해서는 WTO 설립협정에 근거하여 '일시 의무면제(waiver, 웨이버)'를 획득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WTO 회원국('14년 현재 160개국)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**의무수입물량 증량 등 대가 지불이 불가피**하다는 것이다.

MOTIE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❑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18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“쌀이 우리 농업 및 농촌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는 그동안 농업계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전문가·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한 결과, **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**”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,

○ “**WTO 협정에 합치**하는 범위 내에서 **최대한 높은 관세율**을 설정하여 쌀 산업을 보호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❑ 관세화시 **FTA, TPP** 등에서 쌀의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될 가능성에 대한 농업계 우려에 대해, 정부는 그동안 체결한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왔고,

○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FTA(참여 결정시, TPP 포함)에서 **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속적으로 보호**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.

❑ 또한 정부는 관세화 이후에도 쌀 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**체질을 개선하고 농가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대책**을 수립하고 있으며

○ 주요 방향은 안정적 **생산기반 유지, 농가소득 안정, 경쟁력 제고, 부정유통 방지(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유통 금지)** 등이며, 향후 **국회와 농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하여 세부 내용을 확정**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❑ 앞으로 정부는 **국회 보고 등을 거쳐 9월말까지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**하고, 금년 말까지 국내 법령 개정 등을 거쳐 **내년부터 관세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**할 계획이다.

○ **관세 수준 등** WTO에 통보할 핵심 사항은 전문가 협의 등 추가검토를 거쳐 **농업계와 국회에 설명한 후 확정**할 계획이다.

❑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“내년부터 쌀을 관세화하는 것은 **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**이므로 이를 **쌀 산업 발전의 계기로 활용**해야” 한다고 하며

○ 지난 20년간 우리 쌀 산업은 농업계와 정부의 지속적 노력과 투자로 소비, 생산, 유통 전 부문에서 **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**해 가고 있으므로

○ 쌀 산업의 **미래를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를 발굴**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**정부와 농업계의 역량을 집중**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.

MOTIE
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